

김수영 시에 나타난 '집'과 '길'의 현장성

이 승 규*

차 례

- | | |
|----------------------|--------------------|
| 1. 공간에서 현장성으로 | 3. '길', 민중과 역사의 발견 |
| 2. '집', 자기 성찰과 생활 체험 | 4. 나가면서 |

국문초록

본고의 목적은 김수영 시에 드러난 현장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현장성은 실제 벌어지는 시인의 체험이 현장의 요소들과 교섭하여 작품 창작을 추동하고 작품의 구조 형성에 긴요하게 작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김수영 시에서 '집'과 '길'은 그의 작품 세계에서 뼈대를 이루는 두 현장이다. 전쟁 직후 처참한 상황에서도 그가 가족애를 느끼고 갈구하면서 자기 성찰을 이행하는 광경이 신당동 집을 현장으로 한 <나의 가족>에 구현되었다. 그가 생애 후반을 보낸 구수동 집은 노동의 감각을 익히고 사회를 직시하며 사유하던 자연의 현장이었다. <초봄의 뜰 안에>를 비롯해 <도적> 등의 시에서 한 시인이 비로소 진정한 생활을 체험하는 과정이 적실하게 드러난다. 서울의 시인으로서 그가 태어나고 자란 종로 거리는 그의 분향과 같으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의 의식 형성에

* 안양대학교 부교수

커다란 계기가 되었다. <현대식 교량>에서 화자는 세대를 넘어 새로운 시간을 상상하면서 스스로를 갱신하는 극적인 장면을 보여준다. <거대한 뿌리>에서는 화자가 민중과 역사를 발견하는 순간의 환희를 거칠지만 진실한 목소리로 표출한다. 시 속에 나타난 인물과 사물 들은 그 거리에서 익숙하게 볼 수 있는 대상으로서 그가 길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체험한 것이며 그에게 주체적 역사관과 생의 긍정성을 새롭게 일깨웠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김수영, 현장성, 집, 길, 자기 성찰, 생활 체험, 민중, 역사

1. 공간에서 현장성으로

작년인 2021년은 김수영 태어난 지 100년이 된 해이다. 한 해 동안 김수영을 기념하는 학술대회 발표가 이루어졌고 학회 이외에도 그에 관한 여러 논문과 평론 등이 발표되었다.¹⁾ 그 전부터 이어온 단행본 발간도 활발하였다. 그 가운데 주목할 것은, 전기적 측면에서 김수영의 행적을 밝히거나 김수영 시의 공간을 실증적인 차원에서 파악하는 저작들이다. 2019년의 『세계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리라』는 박수연 외 여러 연구자들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과 일본을 답사하여 시인의 행보를 추적한 결과물이다.²⁾ 2021년의 『길 위의 김수영』은 홍기원이 분가 유족의 도움

1) 김수영이 1921년에 태어나 1968년에 타계했기 때문에 그의 50주기인 2018년과 탄생 100주년인 2021년이 불과 3년 간격으로 이어졌다. 2018년에 이영준이 엮은 두 번째 개정판 전집이 민음사에서 출간되고, 2021년 『한겨레』에서 여러 연구자와 시인 등이 참여하여 26개의 열쇳말을 중심으로 김수영을 조명하는 글이 5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연재되었다. 이 시기에 걸쳐 김수영의 문학에 대한 논의가 더욱 집중되었다.

2) 박수연 외, 『세계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리라』, 서해문집, 2019.

을 받아 김수영이 거쳐 간 거의 모든 장소를 구체적으로 조명한 책이다.³⁾ 같은 해 마지막 날 나온 『김수영, 시로 쓴 자서전』은 김응교가 그간 집적한 자료를 바탕으로 김수영의 시를 창작 시기순으로 해설하면서 그의 삶을 재구성한 저작이다.⁴⁾ 계간 『푸른사상』을 통해 김수영의 아내인 김현경과 다수의 대담 및 답사를 진행했던 맹문재 또한 단행본 출간을 앞두고 있다.⁵⁾ 그리고 『한겨레』가 ‘거대한 100년, 김수영’이라는 타이틀 아래 기획·연재한 글이 묶여 이듬해인 2022년 5월에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로 출판되었다.⁶⁾

논문을 통해서도 김수영 시의 공간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여태천은 김수영 시의 장소적 특징을 연구하여, 그의 시에 드러난 ‘방’과 ‘집’이 실존적 자기 정위의 어려움과 현실에 대항하는 시도가 나타나는 공간이라고 했다.⁷⁾ 권경아는 김수영 시를 도시 문명의 산물이라 파악하여, 시 속의 도시가 우연성과 일시성, 덧없음의 공간으로 표출되며 그 공간이 시인에게 파편화된 현재성으로 인식됐다고 하였다.⁸⁾ 이경수는 입화 시와의 비교를 통해 김수영 시에 나타난 ‘방’이 자신 안의 본질을 응시하며 사랑을 발견하는 공간이라고 하였으며, 시에서의 거리가 절망 속에서도 주체를 일으켜 세워 각성시키는 공간이라고 규명하였다.⁹⁾ 현장답사를 통해 실증적인 사항을 발굴하고 ‘컨텍스트로서의 공간

3) 홍기원, 『길 위의 김수영』, 삼인, 2021.

4) 김응교, 『김수영, 시로 쓴 자서전』, 삼인, 2021.

5) 한편 김현경은 2020년에 김수영의 삶을 추억한 산문집 『남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나』(푸른사상)를 냈는데, 이 책은 2013년의 『김수영의 연인』(책읽는오두막)을 일부 수정해서 재간행한 것이다.

6) 고봉준 외,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한겨레출판, 2022.

7) 여태천, 『김수영 시의 장소적 특성 연구-‘방’과 ‘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4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참조.

8) 권경아, 『김수영 시에 나타난 도시의 시간과 공간 인식』, 『인문학연구』 35집,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2005, 30~31쪽.

9) 이경수, 『입화와 김수영 시에 나타난 ‘거리’와 ‘방’의 공간 표상』, 『어문논집』 85권, 민족어문학회, 2019, 57~58쪽.

과 작품의 연관성'을 파악한 김응교는, 김수영 시에서의 서점, 집, 도서관이 그의 무수한 갈등과 사색의 공간이라고 하였다.¹⁰⁾ 서덕민은 김수영의 시 <사랑의 변주곡>을 분석하면서 '자연-방-도시'로 연결되는 시의 공간을 통해서 혁명의 의미가 완성되었다고 밝혔다.¹¹⁾

위의 저작들은 전적으로 혹은 부분적으로 김수영의 전기적 연구와 아울러 작품 공간에 대한 탐구의 결과물이다. 그 밖의 논문과 평론까지 포함한다면 그에 대한 적지 않은 성과가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김수영 시에서의 현장성 연구가 더해질 필요가 있다. 그간 김수영 시의 공간 연구는 작품 해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그의 시세계에 대한 특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작품의 배경을 이해하거나 시의 의미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실제의 공간이 기호적으로 혹은 추상적으로 처리되었으며 그 공간이 작품을 이해하는 배경에 머무는 경향이 짙었다. 그런데 시에서 어떤 공간은 단순히 작품의 배움으로 그치지 않고 시에 중심 의미를 생성하고 현장의 사물이나 인물과 함께 유기적으로 작동되기도 한다. 공간의 특별한 의미 작용을 더욱 명료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장성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장성에는 현장에서의 시인의 체험이 중시된다. 그 체험이 구체적인 현장에서 이루어지면서 현장 요소로서의 인물이나 사물이 시인에게 작품 창작을 추동하고 현장의 요소가 작품의 구조 형성에 작용하는 것이 시에서의 현장성이라 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각별한 체험이 작품 창작 과정에 적용되고 작품 구조에 연계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장소적 실체인 현장이 전면에서 드러나지 않더라도 시 창작에 추동성을 부여하고 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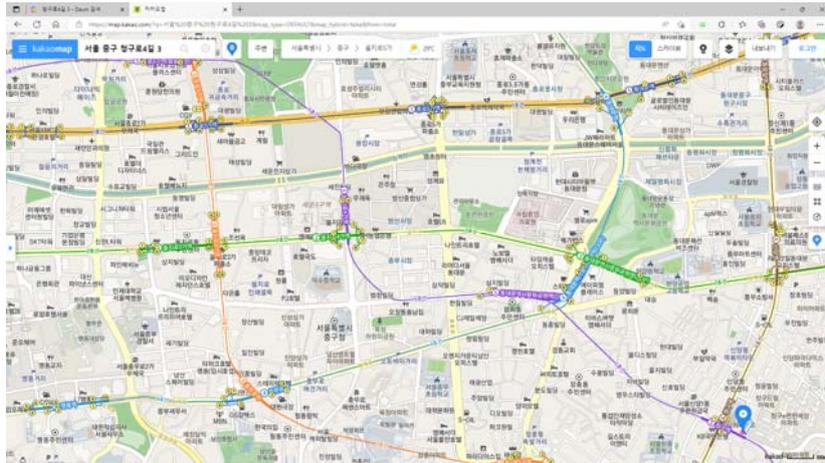
10) 김응교, 『마리서사·유명옥·국립도서관-김수영 시의 장소에 대한 연구 : 김수영 연구 (7)』, 『외국문학연구』 7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화연구소, 2019. 참조.

11) 서덕민, 『현대시에 나타난 혁명의 공간-김수영의 시 <사랑의 변주곡>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2(2),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21. 참조.

품의 구조에 연계성을 맺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일반적인 해석에서, 작품의 창작 과정과 원리적 구조 파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장성 연구가 필요하다. 김수영의 시가 대체로 관념적인 편이지만 당대의 시인들과 달리 실생활의 소재를 포착하고 현실의 성찰과 변화를 강렬히 추구한다고 할 때 현장성 탐색을 통해 작품의 세부와 의의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김수영 시의 현장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현장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작품 속에 드러나지 않은 현장의 세부들, 현장 연구를 통해 더욱 분명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김수영 시에 나타나는 '집'과 '길'의 현장성을 헤아려 보고자 한다. 이 두 현장은 그의 시에서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김수영 문학 현장의 '안팎'이면서 개인과 사회로 이어지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김수영은 수없이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그곳을 시 창작 작업실로 삼았다. 집은 그가 가장 오래 거하는 공간인 동시에 창작은 물론 양계업까지 병행해야 했던 생활의 현장이었다. 1955년 소음을 피해 이사하여 죽을 때까지 살았던 데가 마포 구수동으로 지금과 달리 한강이 곧바로 바라보이는 곳이었다. 집 앞 강가에 무허가 집들과 채소밭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그는 자연의 정서를 한껏 느끼면서 이웃을 관찰하고 노동의 감각을 체득하였다. 또한, 김수영은 가장 먼저 현대화된 도시, 서울의 시인인 만큼, 그가 태어나고 살아온 거리는 그에게 현실과 역사 그 자체였다. 거기에서 길거리의 사람들을 만나고 혁명을 체험했다. 특히 종로 일대는 그의 조상을 비롯해 그가 나고 자라 줄곧 지내던 문학의 현장이다. '집'과 '길'은 김수영 시에서 뼈대를 이루는 현장이면서 그의 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2. ‘집’, 자기 성찰과 생활 체험



[지도] 신당동 집(우측 하단 표시, 카카오맵)



[사진1] 김수영 집 대문 [사진2] 김수영 집 주위 [사진3] 김수영 집 뒤편 (청구로 4길 15-1 앞 골목)

포로수용소에서 풀려나 부산을 떠돌다 1954년 서울에 돌아온 김수영은 신당동 294-63번지(청구로4길 3)에서 가족과 함께 기거한다. 아내와는 실질적인 이혼 상태였고 아들조차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해 아내가 돌아와 함께 성북동으로 분가하지만 이전까지는 신당동 방 두 개짜리 집에서, 전쟁 때 행방불명된 두 남동생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과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 전에 김수영 가족이 종로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용두동과 현저동으로 이사한 적이 있는 만큼 경제적인 요인에 의해 신당동에 터를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¹²⁾ 그럼에도 [지도1]에서 볼 수 있듯 신당동 집은 김수영이 태어나고 자란 종로, 동대문 일대와 지척에 위치한다. 신당동 집의 대문 자리는 김수영이 살던 때와 다르지 않다고 하며,¹³⁾ 지도와 사진에서 볼 수 있듯 집 주위가 건물과 아파트로 바뀌었다. 다만 [사진3]과 같이 집 부근에 옛길과 집터가 아직 남아서 당시 작은 집들이 밀집해 있던 흔적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최하림의 평전에 따르면 그 당시 김수영의 방황이 얼마나 깊었는지 드러난다. 그가 술에 취해 방 안의 물건을 집어 던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식구들을 들볶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그 모습은 누이인 김수명의 표현을 빌리면 “오빠가 악마 같았다”고 할 정도였다.¹⁴⁾ 그런 사정에 비해 1954년에 쓰인 <나의 가족>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정겹다.

조용하고 늙름한 불빛 아래
가족들이 저마다 떠드는 소리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전령(全靈)을 맡긴 탓인가
내가 지금 순한 고개를 숙이고
온 마음을 다하여 즐기고 있는 서책은
위대한 고대 조각의 사진

12) 이 집은 막내이모 안소순(김수영의 어의동보통학교(현 효제초) 동창이자 가수 차중락의 어머니)이 운영하던 인쇄소의 별채이다. 홍기원은 김수영 어머니 입장에서 전쟁 전부터 살던 충무로4가 집에 돌아가지 않은 것은 세 아들이 의용군으로 끌려간 집에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 추측한다.(홍기원, 앞의 책 221쪽 참조) 그렇지만 그 집은 종로와 충무로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 언제든지 가족 및 친지의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으며 경제활동도 도모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13) 홍기원, 같은 책, 222쪽.

14)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화사, 2001, 216쪽.

그렇지만
구차한 나의 머리에
성스러운 향수(鄉愁)와 우주의 위대함을 담아 주는 삼시간의 자극을
나의 가족들의 기미 많은 얼굴에 비하여 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

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그래도 조금이나 부자연한 곳이 없는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나는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냐

차라리 위대한 것을 바라지 말았으면
유순한 가족들이 모여서
죄 없는 말을 주고받는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 안에서
나의 위대의 소재(所在)를 생각하고 더듬어 보고 짚어 보지 않았으면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의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
이것이 사랑이냐
넓아도 좋은 것은 사랑이냐

- <나의 가족>(1954)¹⁵⁾ 부분

소음에 몹시 민감한 그에게 가족들의 대화 소리가 거슬리지 않은 것은, “내가 그들에게 전령(全靈)을 맡긴 탓인가”라고 말할 정도로 가족에게 마음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화자는 고대 조각이 실린 책을 보고 있으나 동시에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다. 시에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화자와 가족은 같은 공간에 있지 않다. 그는 장남으로서 독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⁶⁾

15) 시 창작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작품 제목 옆에 창작 연도를 붙인다.

16) 그는 5남 3녀의 장남으로서 가족이 그에게 거는 기대 못지않게 집안에서 받는 특혜 또한 있었다. 가족이 만주에서 되돌아와 충무로4가 적산가옥에 들고 나서

그의 식구는 도합 일곱 명이다. 남자 삼형제에 여자가 삼형제, 그리고 늙으신 어머니이다. 이 무기력한 책상 주인공은 세칭 맏아들이다. 이 '맏아들'이라는 것을 방패 삼아 혼자만 독방을 쓰고 있는 데에 대하여 나머지 식구들은 한 번도 불평을 표시한 적이 없었다. 이것이 그에게는 오히려 미안하였다.¹⁷⁾

시와 산문을 쓴 순간이 같지 않겠지만 산문의 정황을 볼 때 시에서의 화자가 자신의 독방에서 딴 방에 모여 있는 가족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대화의 내용을 알 수 없지만 일상적인 것이었을 테고 그것이 지금 화자가 들여다보고 있는 책 속의 고대 조각과 대비될 것이다. 사진을 통한 “성스러운 향수(鄉愁)와 우주의 위대함을 담아 주는 삼시간의 자극”에 “나의 가족들의 기미 많은 얼굴”을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은, 그런 성(聖)과 속(俗)의 대비가 무색할 만큼 가족에게 커다란 애정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제각각 자기 생각에 빠져 있으면서 / 그래도 조금이나 부자연한 곳이 없는 / 이 가족의 조화와 통일”을 화자가 느끼는 것은, 그가 전쟁터와 수용소에서 겪은 죽음의 공포와 아내, 자식과의 이별, 실연으로 인한 절망¹⁸⁾ 등 극한 고통에서 벗어나 신당동

어머니가 김수영의 청에 따라 부근에 공부방을 따로 마련해 주기도 했다.(홍기원, 앞의 책, 118쪽 참조) 김수영 가족이 만주에서 열차로 돌아오던 때의 일화에서도 그러한 면이 나타난다. “귀국하는 사람들로 열차가 만원인데, 열차가 서면 다들 내려서 물을 찾고 나뭇가지를 주워서 밥을 짓는 등 야단이었어요. 그런데 김수영 시인은 나무 그늘 아래에서 책을 보느라고 신경도 안 썼어요. 7살인 막내 여동생까지 나서서 나뭇가지를 주워오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흉을 많이 보았어요.”(김현경·맹문재 대담, 『해방 전후의 김수영』, 『푸른사상』 제21호, 푸른사상사, 2014, 249쪽)

17) 김수영, 『초라한 공간』,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18, 77~78쪽. 이 글은 1954년 9월에 『희망』이란 잡지에 게재되었다.

18) 결혼한 뒤 포로로서 아내와 떨어져 사는 동안 김수영이 만난 몇몇 여성 가운데 '로 선생'은 포로수용소 간호사이고 장애인을 남편으로 둔 유부녀이다. 환도 후 간호사 자격증이 없는 그녀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미도파백과점 판매원으로 일하며 김수영과의 불완전한 만남을 이어간다. 김수영이 김현경과 재결합한 뒤에도 그 만남이 지속되었다.(김수영, 『일기초』, 같은 책 참조) 이러한 사실은 김

의 집이라는 공간에서 잠시 평온을 찾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화자의 방은 나머지 가족과 분리되어 있으며 같은 방의 일원들조차 각각의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지만, 모두가 부자연한 것 없이 조화와 통일을 이루는 까닭은 가족으로서 서로 배려하고 인내하였기 때문이고 그것은 결국 깊은 가족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유순한 가족들” 앞에서 다른 “위대한 것”조차 힘을 잃을 만큼, 전쟁으로 피폐해진 “거칠기 짝이 없는 우리 집안”에 “한없이 순하고 아득한 바람과 물결”과 같은 평화가 밀려드는 순간, 화자는 “이것이 사랑이냐”고 묻는다. 빈한한 집의 환경, 좁은 방에 성인 남녀 식구 여럿이 기거하는 것조차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좁아도 좋고 넓어도 좋은 방 안”이라고 한 것처럼, “넓어도 좋은 것이 사랑”이라는 발상은 세속의 상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현실의 아픔과 슬픔마저 가족의 사랑 앞에 무화된다는 것을 깨달은 부분이다.

같은 해 김현경과 재결합한 김수영은 성북동을 거쳐 이듬해 한강이 그대로 바라다보는 마포 구수동 41-2번지(토정로 198)로 이사한다.¹⁹⁾ 1955년 6월경의 일이다. 한적한 동네의 널따란 땅에 지어진 집에서 김수영은 비로소 안정적인 생활을 한다. 집에서 창작과 번역을 병행하면서 아내와 양계도 시작하였다.

보석같은 아내와 아들은
화롯불을 키워 가며 병아리를 기르고
짓이긴 파 냄새가 술 취한

수영의 심부름 때문에 ‘로 선생’과 직접 만난 김수영의 증언에서도 나타난다. 최하림은 그 사랑을 김수영의 극단적 외로움이 조장한 정신적인 교감으로서의 ‘독특한 사랑’이라고 하였다.(최하림, 앞의 책 217~221쪽 참조)

19) 김현경에 의하면 구수동 집의 분위기는 다음과 같다. “여기저기 소음이 없는 곳을 찾아 우리 형편에 맞는 짝 집을 구하다 보니 황무지 같은 서강(西江) 언덕에 상여처럼 앙상한 외딴집 한 채를 사서 이사했습니다. 500여 평 대지에 건평 26평, 주위엔 잡초가 우거져 모기가 들끓었지만, 멀리 흐르는 한강물은 일광에 따라 푸른빛으로 붉은빛으로, 또 잿빛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물들여 주었습니다.”(김현경, 앞의 책, 156쪽)

내 이마에 신약(神藥)처럼 생긱하다

흐린 하늘에 이는 바람은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데
옷을 벗어 놓은 나의 정신은
늪은 바위에 앉은 이끼처럼 추워라

- <초봄의 뜰 안에>(19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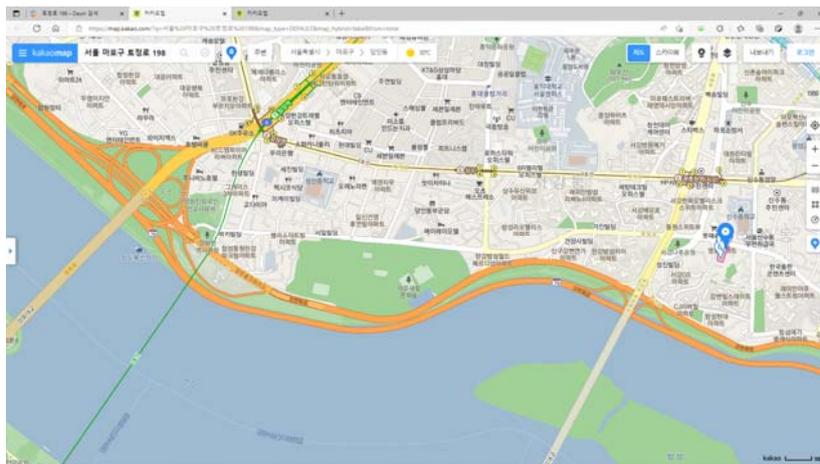
전날 술을 마시고 일어난 화자가 어린 아들(9세)과 만삭의 아내가 화롯불을 피워가며 닭을 키우는 장면을 목격하고는 가장으로서 또 다른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가족을 “보석같은”이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김수영의 시에서 드문 일인데, 분가하여 처자식을 부양해야 할 가장으로서 책임감과 함께 가족애와 생활의 의욕을 강렬하게 느끼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약처럼 생긱”한 파 냄새는 실제의 것이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정신적인 각성을 드러낸 것처럼 보인다. 다음 연에서,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하늘에 바람처럼 또 다른 변화의 촉구가 이어지기 때문이다.²⁰⁾ 이 시에서는 가족에 대한 성찰과 함께 자아의 일신에 대한 바람과 다짐이, 초봄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계절감을 만끽할 수 있는 구수동 외딴집의 현장과 맞물려 있다.

구수동 집에서 그는 양계를 하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노동의 감각을 익힌다. <여름 아침>(1956)에는 햇빛을 이고 밭을 고르는 이웃들이 묘사되고 있다. 화자도 무씨를 뿌리며 이웃과 다룰 것 없이 농사에 동참하는 모습이 나타난다.²¹⁾ 그러면서 집 근처의 이웃들을 관찰하

20) 이경수는 여기서 느끼는 ‘한기(寒氣)’가 한겨울의 추위가 아니라 정신의 얼음이 녹아가는 ‘해빙’의 감각에 가깝다고 보았다.(이경수, 『생활의 감각과 사랑의 기술』, 고봉준 외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한겨레출판, 2021, 106쪽) 결국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간을 통해 정신의 변모를 표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하다.

21) 화자가 자연을 의식하고 그것에 순응하면서 삶의 의지를 천명하는 목소리가 집 주변을 현장으로 하는 다른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10행으로 된 <채소밭 가에

고 그들과 관계하면서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현실의 문제를 통렬히 의식하기도 하였다. 특히 <가다오 나가다오>(1960)에서는 부당한 외세를 배격하면서 그와 대비되는 농사의 숭고함을 강조하였다. 김수영이 늘 마주하는 강가의 밭, 일상적으로 접하는 농사짓는 실제의 이웃들이 작품에 구체적인 요소로 적용되고 중요한 의미 구도로 작동하는 것은, 앞의 시와 마찬가지로 현장이 시인의 의식을 촉발하고 시를 추동하면서 그것이 시의 구조 속으로 연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구수동 집이라는 현장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다.



[지도2] 구수동 집(우측 표시, 카카오맵)

서>(1957)에 “기운을 주라 기운을 주라”는 행이 행을 번갈아 다섯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바람이 이는 밭에 자라나는 채소처럼 스스로의 내면에 절실하게 기운을 북돋는 자기암시를 시도하는 것으로 읽히기도 한다. 시 <사치>』(1958)에서 노동을 끝낸 이웃 사람에게 인사라도 건네고 싶은 마음을 느낀 뒤에 “자연이 하라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 그리고 자연이 느끼라는 대로 느끼고 / 나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라 한 것은, 본능에 순응하는 것처럼 자연에 온몸을 맡기고자 하는 화자의 바람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싸리꽃 핀 별판>(1959)이나 <파발 가에서>(1960)에서도 다소 관념적인 내용으로 펼쳐져 있으나 그 사유가 진행되는 현장은 강가에 접한 집 주변이다.



[사진4] 집터의
영풍아파트



[사진5] 서강나루
표지석



[사진6] 현재 강가 모습

[지도2]에서 보듯 지금은 김수영의 집 자리에 아파트가 들어차고 강가에 강변북로가 생겼는데 구수동 집에서 강이 가깝다. 집 앞에 서강나루 표지석이 있고 조금만 걸어가면 한강 다리를 볼 수 있을 정도이다. [사진6] 속 왼편에 보이는 다리는 마포대교지만 김수영이 살던 당시에 인근에 존재하던 다리는 [지도2]에서 볼 수 있듯 집에서 서쪽 편에 세워진 양화대교뿐이다.²²⁾ 구수동 집은 그대로 김수영의 작업실이면서 자기 성찰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그는 거기서 4·19혁명을 맞는다. 시와 생활을 일치시키려는 시인답게 급변하는 현실을 맞닥뜨리면서 혁명을 사유하고 자기 안에 혁명을 완성하려고 시도한다. <그 방을 생각하며> (1960)에서는 집에서 방을 바꾸는 행위를 통해 현실에서의 혁명을 통찰하고 혁명의 실패를 재산과 역사로 삼을 줄 아는 자세를 획득한다. <피아노>(1963)와 <의자가 많아서 걸린다>(1968)는 집안의 경제가 안정되면서 점차 속되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경계하고 비판한 작품들이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의 집은 자신의 내면이면서 존재 자체로 대상화된다.

22) 시 <거대한 뿌리>에서 ‘거대한 뿌리’의 구체적인 비유물로 표현된 ‘제3인도교’는, 1962년에 착공돼 1965년 완공된 양화대교로 추정된다. 양화대교는 당시에 그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다리이다. 시기로 미루어 볼 때 다리 건설 과정을 시인이 일상적으로 지켜보았을 가능성이 크다.

시인 자신을 점검하고 반성하는 데 집이 하나의 계기이자 실제로 작동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도적>(1966)은 집안에서 펼쳐지는 도난 행위를 통해 윤리적 태도를 성찰하는 작품이다. “도적이 우리 집을 노리고 있다”고 시작하는 이 시에서, 옆집 신축 공사하는 인부가 철사를 빼들려 화자의 집 무너진 울타리 안쪽에 숨겨 놓은 것을 아내가 다시 빼들려 광에 숨겨둔 일이 다뤄지고 있다.

나는 도적이 이 철사의 반환을 피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 건넌방의 캐비닛을
노리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아마
그럴지도 모르지만
나는 광문에 못을 쳐 놓았다
그 이튿날 여편네와 식모가 하는 말을 들어 보니
철사 몽치는 벌써 지하실에 도피시켜 놓은 모양이었다
도적은 간밤에는 사그러진 담장 쪽이 아닌
우리 집의 의젓한 벽돌 기둥의 정문 앞을
새벽녘에 거닐었다고 한다
시험공부를 하느라고 밤을 새는 큰아이놈의
말이다 필시 그럴 거라

그래도 여편네는 담을 고치지 않는다
내가 고치라고 조르니까 더 안 고치는지도 모른다
고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돈이 아까울지도 모른다

고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돈이 아까울 거라
내 추측이 맞을 거라
아니 내가 고치라고 하니까 안 고칠 거라
이 추측이 맞을 거라 이 추측이 맞을 거라

이 추측이 맞을 거라

- <도적>(1966) 부분

돈이 될 수 있는 철사를 다시 빼돌린 것은 아내이지만 화자도 광 문에 못을 쳤다는 점에서 절도에 관여하고 있다. 울을 넘어온 장물은 아내에 의해 다시 광에서 지하실로 옮겨지고 화자의 죄는 더욱 깊어진다. 화자는 새벽에 도적이 철사를 다시 찾으려고 집안을 염탐하는 기미를 알아챈다. 그래서 화자가 담을 고치라고 아내에게 조르는데 아내는 담을 고치지 않는다. 담을 고치지 않는 이유를 추측하는 과정에서 화자의 자기 인식이 더해지고 있다. 즉 아내가 담을 고치지 않는 이유가 “내가 고치라고 하니까” 안 고치는 것이라는 인식은, 추측의 실제 결과를 떠나 더 나쁜 도적인 ‘나’에 대한 도저한 부정으로 연결된다. ‘적’이 여러 차례 등장하는 김수영의 시편을 감안해 볼 때, 이는 도처에 적이 있다거나 누가 적인지 분간하기 어렵다는 차원(<하…… 그림자가 없다>, <아픈 몸이>을 넘어²³⁾ 그 ‘적’이 정작 ‘나’일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깨달음으로 귀착된다.

이 시에서 집의 무너진 담은 무너진 양심으로 화하며 그 집은 광과 지하실을 포함하여 도적의 소굴로 바뀐다. 무너진 담을 수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너진 양심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것이 곧바로 가능할 것 같지 않다는 점에서 죄는 더 깊어진다. 소시민적 존재인 화자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알 수 없지만 이 시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화자의 자기 인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생활 속에 맞닥트리는 욕망과 같

23) 4·19혁명 직전에 쓰인 <하…… 그림자가 없다>(1960)에서는 민주주의를 이룩하기 위해 처단해야 할 적이 우리 일상 속 처처에 살아 있다는 인식과 그 적과의 어려운 싸움에 대한 고충이 전면에서 드러나 있고, <아픈 몸이>(1961)에서는 혁명 실패를 인정하면서 그래도 그 싸움이 무한히 계속되어야 한다는 절망적인 의지가 나타난다. 그밖에 <적>(1962)과 <적 1>, <적 2>(1965) 연작에도 적이 등장하는데, 공통적으로 그 적은 ‘나’ 밖에 존재하고 있으며 ‘나’가 맞서 넘어서야 할 존재이다.

등이 집에 내재해 있으며 그것을 성찰하는 과정 또한 집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의 구조 속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이 시는 잘 보여준다.

3. ‘길’, 민중과 역사의 발견

종로에서 태어나 성장한 김수영은 유학 시기와 전쟁 전후를 제외하고는 수없이 이사 다니면서도 서울을 떠나지 않았다. 안정적인 직업을 지니지 않았던 그가 번역이나 시 발표, 친교를 위해 혹은 아무 용무 없이 서울 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은 흔한 일이었다. 길을 걷다 그가 들르는 다방, 사무실, 도서관, 다리, 시장 등과 거기서 마주치는 다양한 사람과 사물이 그의 시에 영향을 끼쳤으며 작품의 소재와 내용으로 긴밀히 이입되었다.²⁴⁾ 그 과정에서 김수영은 깊이 있는 사유를 통해 그 구체적인 현장의 요소들을 작품에 유의미하게 반영하였고 개성적인 시편들을 산출하였다.

종로 네거리도 행길에 가까운 일부러 떠들썩한 찻집을 택하여 나는
앉아 있다.

이것이 도회 안에서 사는 나로서는 어디보다도 조용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나의 반역성을 조소하는 듯이 스무 살도 넘을까 말까 한 노는
계집애와 머리가 고슴도치처럼 부스스하게 일어난 쓰메에리의 학생복을
입은 청년이 들어와서 커피니 오트밀이니 사과니 어수선하게 벌여 놓고
계통 없이 치먹고 있다.

- <시골 선물>(1954) 부분

24) 상식적인 언급이지만 종로는 김유정의 소설 무대이면서 1930년대 박태원과 이상의 문학 현장이다. <네거리의 순이>를 쓴 임화는 청년 시절의 김수영에게 롤모델에 가까운 인물로 낙산 아래 동승동에 살았으며, 인제 출신으로 김수영과 가장 가까이 교류했던 박인환은 종로1가에 살면서 종로3가에서 서점 ‘마리서사’를 운영하기도 하였다.

모두들 공부하는 속에 와 보면 나도 옛날에 공부하던 생각이 난다
그리고 그 당시의 시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았다고
누구나 어른들은 말하고 있으나
나는 그 우열을 따지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라고'
구태여 달관하고 있는 지금의 내 마음에
샘솟아 나오려는 이 설움은 무엇인가

- <국립도서관>(1955) 부분

남의 일하는 곳에 와서 아무 목적 없이 앉았으면 어떻게 하리
남이 일하는 모양이 내가 일하고 있는 것보다 더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면 어떻게 하리

일한다는 의미가 없어져도 좋다는 듯이 구수한 벼이 있는 곳
너는 나와 함께 못난 놈이면서도 못난 놈이 아닌데
쓸데없는 도면 위에 글씨만 박고 있으면 어떻게 하리
엄숙하지 않은 일을 하는 곳에 사는 친구를 찾아왔다

- <사무실>(1954) 부분

<시골 선물>에 우선 엿보이는 것은 소음과 번잡함에 대한 화자의 염오(厭惡)이다. 종로 네거리 “일부러 떠들썩한 찻집을 택하여 앉”는 것은 소음에 너무 민감한 화자가 그것을 감당하는 역설적인 방식이다. 그럼에도 찻집에서 마주친 젊은이들이 더욱 못마땅해 보이는 것은 서울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인식 때문이다. 1953년 군산 강연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한 다방(‘뷔엔나’)에서 “서울은 차디찬 곳이다”라고 느끼면서 “알 듯 알 듯하면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서울은 무엇인가? 이 결론 없는 인생 같은 서울, 괴상하고 불쌍한 서울”이라고 읊조리는 일기의 한 장면에서 서울에 대한 그의 의식이 잘 드러난다.²⁵⁾

25) 2월 3일 같은 날 일기에서 그는 서울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다. “서울 사람들, 서울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 당초에 마음이 놓이지 않는 그 표정들이 몹시 마음에 걸린다. 그래서 나의 눈은 나도 모르게 그들의 하나하나의 지나

1955년 당시 국립중앙도서관은 도심부인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있었는데 김수영이 번역을 하다가 여러 가지 사전을 참고하려고 곧잘 도서관에 들렀다.²⁶⁾ 그가 자주 다니던 다방이나 술집이 명동 일대에 있었으니 늘 다니는 길목에 있던 건물이기도 하다. 거기에서 화자가 느끼는 감정은 설움이다. 전쟁을 겪고 민간인 억류자로 수용소에서 지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이므로 치유되지 않은 채 마음이 상처투성이였을 것이다. 그리고 지난날 학생으로 공부하던 때가 머나먼 옛날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것이다. 화자가 도서관에서 스친 학생들에 대한 그러한 거리감은 친구의 사무실에서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사무실>에는 화자가 아무 목적 없이 사무실에 방문하여 일하는 친구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는 일이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면서 그렇지 못한 자신의 상태를 응시하면서 느끼는 낭패감이 담겨 있다. 그러한데도 여전히 친구가 하는 사무가 “쓸데없는 도면 위에 글씨만 박고 있”다고 한다거나 “엄숙하지 않”다고 하는 건 화자가 그와의 거리감을 넘어 자신과 타인에 대한 불신에까지 빠진 지경이라 할 수 있다. 도시의 길에서 들르는 찻집과 도서관, 사무실이 화자에겐 편안히 마음 둘 데가 아니고 그곳에서 마주치는 사람들 또한 화자와 상당히 이격하여 있다고 할 때 그 길거리는 거부와 고독과 절망의 현장일 수밖에 없다.

4·19혁명이 지나면서 김수영이 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뀐다. 그가 1960년 이후 창작한 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민중을 의식하고 긍정하게 되었다. <눈>(1961)에서 “요 시인 / 용감한 시인 / -소용 없소이다 / 산 너머 민중이라고 / 산 너머 민중이라고 / 하여둡시다 / 민중은 영원히 앞서 있소이다”라고 표현하였다. 이 시에선 시인의 지체와 착오에 방점이 찍혀 있지만 민중의 본질과 가치를 이미 깨달은 화자의

가는 모습 위로 가는 것이다. 놀란 눈, 초조한 눈, 독에 맺힌 눈, 그리고 가늘고 섬세한 발, 무표정한 얼굴, 무색한 피부…….”(김수영, 『일기초(抄)·편지·후기』, 앞의 책 700~701쪽)

26) 김응교, 앞의 논문 161쪽 참조.

의식이 분명히 나타난다. 그리고 젊은이들을 바라보는 시선도 전과 다르게 변하는데, <현대식 교량>에서 화자는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들에게 애정을 느낀다.

현대식 교량을 건널 때마다 나는 갑자기 회고주의자가 된다
이것이 얼마나 죄가 많은 다리인 줄 모르고
식민지 곤충들이 24시간을
자기의 다리처럼 건너다닌다
나이 어린 사람들은 어째서 이 다리가 부자연스러운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이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나는 나의 심장을 기계처럼 중지시킨다
(이런 연습을 나는 무수히 해 왔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반항에 있지 않다
이 젊은이들의 나에게 대한 사랑에 있다
아니 신용이라고 해도 된다
“선생님 이야기는 20년 전 이야기이지요”
할 때마다 나는 그들의 나이를 찬찬히
소급해가면서 새로운 여유를 느낀다
새로운 역사라고 해도 좋다

이런 경이는 나를 늙게 하는 동시에 젊게 한다
아니 늙게 하지도 젊게 하지도 않는다
이 다리 밑에서 엇갈리는 기차처럼
늙음과 젊음의 분간이 서지 않는다
다리는 이러한 정지의 증인이다
젊음과 늙음이 엇갈리는 순간
그러한 속력과 속력의 정돈 속에서
다리는 사랑을 배운다
정말 희한한 일이다
나는 이제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實證)을
똑똑하게 천천히 보았으니까!

- <현대식 교량>(1964)

화자는 식민지 시절 만들어진 다리를 건너면서 부자연스러움을 느끼고 숨을 멈추는 어색한 “반항”을 일삼는데, 그에 비해 젊은이들은 지난 과거를 의식하지 않을뿐더러 그러한 화자의 태도에 이의를 제기한다. 젊은이들의 이의에 대한 화자의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의외의 발상과 맞닿아 있다. 괴로운 과거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다는 화자의 예감은 젊은이들에 대한 사랑과 신용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²⁷⁾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경이는 서로 다른 존재가 상대의 관점을 지켜보고 용인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엇갈리면서 서로 포섭하는 순간에 있으며, 그것들이 또 다른 귀중한 가치로, “사랑”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무언가로 기적 같이 결합하기도 한다. 다리는 그 희한한 장면을 목격한 증인이고, 화자 또한 “적을 형제로 만드는 실증(實證)을 똑똑하게 천천히” 본 목격자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항”이 “사랑”과 “신용”으로 이어지고 “젊음”과 “늙음”의 대별조차 넘어서는 상황에서, “적”조차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화자의 정신의 개변이 ‘다리’를 통한 통섭적 사유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시는 다분히 추상적이지만 작품의 소재가 된 다리는 도시에 존재하는 실제의 현장으로 추정된다.²⁸⁾ 시인은 다리를 일상적으로 건너다니면서 자신의 사유를 다듬었을 것이다.

같은 해에 쓰이고 발표된 <거대한 뿌리>에는 화자가 자신이 품은 사랑을 더욱 격정적인 목소리로 분출하고 있는데, 자신이 살아보지 못한 과거의 서울 길거리를 떠올리고 민중과 역사라고 할 수 있는 대상들을

27) 2연 2행에 “이 젊은이들의 나에 대한 사랑”은 그 자체로의 의미로 통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나 시의 맥락에서 풀어볼 때 1차적으로 ‘젊은이들에 대한 나의 사랑’으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그 사랑으로 인해 화자가 그들의 나이를 헤아리며 새로운 여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28) 김웅교는 그 다리가 밑에서 기차가 엇갈리는 구조라는 점, 젊은이들이 많이 통행하는 서울역과 수제화거리가 다리 인근이라는 점, 그곳이 김수영이 자주 걷는 경로에 걸쳐 있다는 점을 들어 “현대식 교량”이 중구 의주로2가의 염천교라고 특정하였다.(김웅교, 앞의 책 497~498쪽)

의식하고 긍정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전통은 아무리 더러운 전통이라도 좋다 나는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구문의 진창을 연상하고 인환(寅煥)네
처갓집 옆의 지금은 매립한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양젓물 술에 불을 지피며 빨래하던 시절을 생각하고
이 우울한 시대를 파라다이스처럼 생각한다
버드 비숍 여사를 안 뒤부터는 썩어 빠진 대한민국이
괴롭지 않다 오히려 황송하다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
진창은 아무리 더러운 진창이라도 좋다
나에게 늦주발보다도 더 짹짹 울리는 추억이
있는 한 인간은 영원하고 사랑도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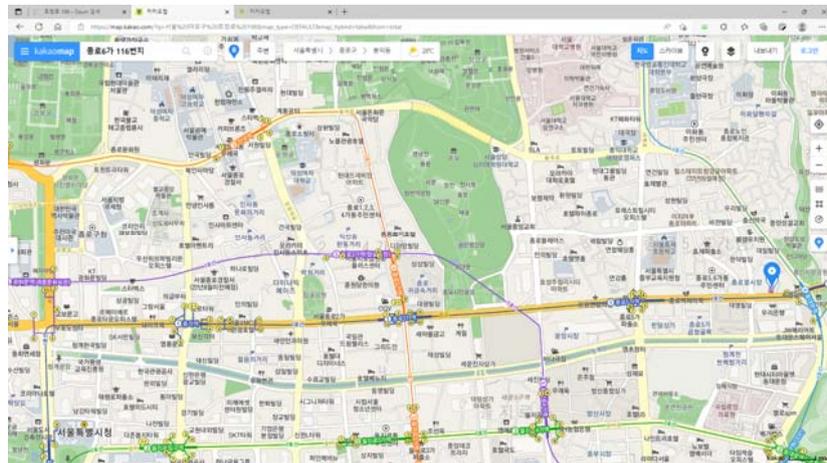
비숍 여사와 연애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진보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네에미 씹이다 통일도 중립도 개좃이다
은밀도 심오도 학구도 체면도 인습도 치안국
으로 가라 동양척식회사, 일본영사관, 대한민국 관리,
아이스크림은 미국놈 좃대강이나 빨아라 그러나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 곰보, 애꾸, 애 못 낳는 여자, 무식쟁이,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이 땅에 발을 붙이기 위해서는
-제3인도교의 물속에 박은 철근 기둥도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좀벌레의 숨털
내가 내 땅에 박는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괴기 영화의 맘모스를 연상시키는
까치도 까마귀도 응접을 못하는 시꺼먼 가지를 가진
나도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대한 거대한 뿌리에 비하면.....

- <거대한 뿌리>(1964) 부분

김수영이 번역을 하려고 읽은 책은 영국의 학자 이사벨 버드 비숍의 『Korea and Her Neighbors』로, 여기에 묘사된 구한말의 서울 거리를 떠올리며 깨달음을 얻는다. 시인이 그간 부정하고 극복하려고만 했던 과거가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귀중한 가치로 화할 수 있다는 사유의 전환을 맞이한다. 화자는 광화문의 박인환 처갓집 옆 개울에서 아낙네들이 빨래 하던 풍경을 떠올리며 ‘역사는 아무리 더러운 역사라도 좋다’라는 명제를 도출해낸다. 더 나아가 인간과 사랑에 대한 영원함을 강조하기도 한다. 반대로 전통이나 역사와 동떨어진 무분별한 외래품이나 약탈적 세력, 허위에 대한 부정을 거침없이 드러낸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열렬히 긍정하고 있는 것이 “반동”으로 집약된 우리의 유물과, 상점, 아픈 지닌 군상들이다. 사물과 인물 들이 씩 없는 열거를 통해 부각되면서 부정한 것과의 대척 위에서 화자의 걱정적인 애정과 찬사로 빛나고 있다. 여기서 나열된 요강, 망건, 장죽, 종묘상, 장전, 구리개 약방, 신전, 피혁점은 유물과 상점들인데 김수영이 나고 자란 종로6가의 상가를 환기시킨다.



[지도3] 종로6가 집(우측 표시, 카카오맵)



[사진7] 집 앞 골목 [사진8] 골목을 빠져나오자 보이는 종로의 풍경 [사진9] 종로 신진시장

그가 태어난 직후 가세가 기울어 이사한 종로6가 116번지에서 김수영의 아버지는 지물포를 운영한다. 그가 14세에 집안이 다시 용두동으로 이사하지만 고모가 옆집인 117번지에 거주하여 이후에도 그 집을 김수영은 제집 드나들듯 한다.²⁹⁾ 김수영이 가장 오래 산 곳이 종로와 그 일대인 만큼 그곳은 그에게 본향에 가까운 곳이다. [사진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김수영의 조부가 살던 종로1가와 현재 그의 생가 표지석이 있는 종로2가를 비롯해 그가 소년 시절에 살던 종로6가까지 지도에서 하나의 길로 더듬어 볼 수 있다. 그 일대는 그가 죽을 때까지 누비고 다니던 시의 현장이다.³⁰⁾ 실제로 종로6가를 답사하면 작품 속 길거리의 분위기가

29) 과음을 하고 만신창이가 돼서 다음날 오전에 깨어난 곳이 종로6가 고모네 집이었을 정도로 김수영은 그 집을 친근하게 여겼다.(김수영, 『낙타 과음』, 앞의 책 참조) 거기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살았던 동네이고, 고모도 아들 없이 딸만 있던 이유로 그가 그렇게 스스럼없이 그곳을 드나들었을 것이다. 일제 강점기 말 가족이 중국 길림으로 이주했다 돌아와 충무로4가에 터전을 잡고 유명옥을 운영하기까지 서너 달간 그 집에서 고모네와 함께 기거하기도 하였다.

30) 비슷한 현장을 다룬 시로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1965)가 있다. 이 시에서의 고궁이 어디인지 불확실하나 종로와 직접 이어지는 궁궐을 생각한다면 종로 3·4가의 종묘와 접한 창경궁(당시 창경원)을 떠올릴 수 있다. 여기서 화자의 의식은 소시민처럼 위축돼가는 개인에 대한 반성과, 자유를 탄압하는 현실에 대

그대로 전해진다. [사진7]의 116번지 앞 폭 2미터 정도의 고요한 골목을 20미터가량 걸어 빠져나오면 번잡한 종로 거리를 맞닥뜨리는데, [사진8]에 보이듯 맞은편으로 가게가 빼곡하고 짐을 나르기 위한 오토바이들이 죽 늘어서 있다. 광화문 방향으로 이어진 풍경인 [사진9]의 상가에 종묘상이나 약방 등 오래된 점포들이 눈에 띄며, 양 길가를 오가는 사람들이 분주하다. 이 시 속에 등장하는 사물과 사람은 김수영이 어릴 때부터 종로6가의 현장에서 늘 보고 겪은 것들과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가 부정하면서 단절하려고 했던 과거가, 현실을 살아가는 민중들과 더불어 “거대한 뿌리”로 표상된 전통과 역사로 되살아나서, 이 시의 창작을 추동하고 작품의 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요소로 연계되어 시의 주제를 구현하고 있다.

4. 나가면서

‘집’과 ‘길’을 중심으로 김수영 시의 현장성을 살펴보았다. 김수영이 생활을 소재와 내용으로 삼는 작품을 썼으며 자신의 이야기를 다루는 데 정직함을 넘어 과감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세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편이다. 그의 행적도 그간의 연구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밝혀졌으며 그가 많은 산문을 남겼기 때문에 그의 시와 삶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되어왔다. 그의 삶에 대해 증언해 줄 유족들이 아직 건강한 편이어서 자세한 기록을 정리한 결과물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다. 여기서 김수영 연구사를 정리할 필요는 없지만 김수영 연구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이 적용돼 왔을 정도로 김수영 연구가 큰 폭으로 진화되었다. 현장성 연구가 어느 시인에게나 잘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김수영이 체험을 위주

한 비판에 맞닿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종로는 현실과 역사에 대한 인식, 태도와 자주 연관되는 현장이기도 하다.

로 한 작품을 주로 남긴 것은 아니지만, 현장성을 적용하면서 그의 시를 더욱 생생하게 이해하고 시세계의 세목을 조금 더 면밀히 탐색할 수 있다.

김수영이 모더니즘 시인으로 출발하였고 서울 종로 출신이라는 점에 서 그가 그간 도시의 시인으로만 규정되었던 경향이 있다. 그의 시에 나타난 '집'의 현장성을 파악한 결과, 어려운 환경에 처한 집에서의 가족과의 생활을 통해 그가 줄곧 자기 성찰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자연에 가까운 구수동 집에서의 노동을 통해 정신적인 성숙을 더해갔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나의 가족>에 장남으로서 가족의 도움에 의지하던 그가 가족애를 느끼고 사랑에 대해 사유하는 장면이 드러나 있으며, <초봄의 뜰 안에>와 <도적> 등에는 구수동 집에서의 생활 체험을 바탕으로 노동과 윤리의 감각을 체득하는 과정이 표출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그의 시에서 덜 주목되었던 자연의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연구가 거듭되어야 할 것 같다. 또한 그가 수용한 역사와 민중에 대한 의식이 상당 부분 그의 거리 체험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종로6가를 포함해 강가와 거리에서 만난 사람 및 사물과의 구체적인 교섭을 통해 그러한 체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현대식 교량>에서 그가 거리에서 젊은 세대와 교호하며 역사적 시간을 발견하고 <거대한 뿌리>에서는 민중과 사회를 새롭게 의식하는 장면이 나타나 있다. 이는 모두 구체적인 현장에서 화자의 체험에 의해 이루어지는 현장성의 발현 과정과도 상통한다.

그의 시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많은 내용들이 실제의 사물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성된 것이므로 시인이 보고 겪은 것들을 최대한 비슷하게 꺾어야만 시를 실질적으로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였다. 논자 또한 시에 나타난 현장을 수차례 답사하였으며 시인의 전기적 사항을 다룬 다양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참고하였다. 피상적인 공간의 의미를 넘어 작품 창작 과정에서의 현장의 추동성과 연계성을 고

려하여 논의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현장성 연구를 통해 그의 시에 덮인 모호한 더께를 조금이라도 들어내고 살아 있는 심부를 조금 더 들여다 볼 수 있겠다는 가느다란 전망 또한 가질 수 있었다. 김수영 연구가 차고 넘친다는 비판을 마냥 덮어두기 전에,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진지하게 돌아보면서 새로운 모험을 감행해 보는 것도 필요해진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

참고문헌

1. 자료

- 김수영, 『김수영 전집 1』, 민음사, 2018.
김수영, 『김수영 전집 2』, 민음사, 2018.

2. 단행본

- 고봉준 외, 『이 모든 무수한 반동이 좋다』, 한겨레출판, 2022.
김응교, 『김수영, 시로 쓴 자서전』, 삼인, 2021.
김현경, 『남아도 좋은 것은 사랑뿐이냐』, 푸른사상, 2020.
박수연 외, 『세계의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리라』, 서해문집, 2019.
염무웅, 최원식, 진은영 편, 『시는 나의 닳이다』, 창비, 2018.
이승규, 『김수영과 신동엽』, 소명출판, 2008.
최하림, 『김수영 평전』, 실천문화사, 2001.
홍기원, 『길 위의 김수영』, 삼인, 2021.
에드워드 켈프, 김덕현 외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2005.
앙리 르페브르, 양영란 옮김, 『공간의 생산』, 에코리브르, 2011.
이 푸 투안, 구동희·심승희 옮김, 『공간과 장소』, 대운, 2007.

3. 논문

- 권경아, 「김수영 시에 나타난 도시의 시간과 공간 인식」, 『인문학연구』 35집, 한양대학교 수행인문학연구소, 2005, 5~34쪽.
김응교, 「마리서사·유명옥·국립도서관-김수영 시의 장소에 대한 연구 : 김수영 연구(7)」, 『외국문학연구』 제73호,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9, 139~167쪽.
김현경·맹문재 대담, 「한국전쟁 동안의 김수영」, 『푸른사상』 제20호, 푸

- 른사상사, 2014, 248~257쪽.
- 김현경·맹문재 대담, 「해방 전후의 김수영」, 『푸른사상』 제21호, 푸른사상사, 2014, 246~251쪽.
- 남기택, 「김수영 평전의 문제」, 『한국시학연구』 제61호, 한국시학회, 2021, 43~68쪽.
- 맹문재, 「김수영 시인의 연보 고찰 (1)」, 『한국시학연구』 제67호, 한국시학회, 2001, 39~71쪽.
- 서덕민, 「현대시에 나타난 혁명의 공간 - 김수영의 시 「사랑의 變奏曲」을 중심으로」,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22(2), 원광대 인문학연구소, 2021, 215~235.
- 서세립, 「1950년대 김수영 시의 공간 인식과 후각의 관련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8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20, 185~211쪽.
- 손남훈, 「1965년 이후 김수영의 시적 대응 태도」, 『한국민족문화』 제66호,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18, 125~150쪽.
- 여태천, 「김수영 시의 장소적 특성 연구-‘방’과 ‘집’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제41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04, 347~387쪽.
- 오채운, 「김수영 시의 방과 내면적 갈등의 변화 양상」, 『열린정신 인문학연구』 제16권 1호, 원광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179~201쪽.
- 이경수, 「입화와 김수영 시에 나타난 ‘거리’와 ‘방’의 공간 표상」, 『어문논집』 제85권, 민족어문학회, 2019, 57~104쪽.
- 이승규, 「김수영 시의 역설 의식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73집, 한국문학학회, 2016, 247~275쪽.
- 이승규, 「김수영 시에 나타난 강(江)의 현장성」, 『국제어문』 제93집, 국제어문학회, 2022, 199~222쪽.
- 최호영, 「김수영 시에 나타난 자연인식과 미학적 변주」, 『문학과 환경』 9(1), 문학과환경학회, 2010, 143~165쪽.

<Abstract>

The Siteness of 'House' and 'Road' in Kim Soo-yeong's Poetry

Lee, Seung-Gyu*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on-the-ground nature of Kim Soo-yeong's poetry. It can be said that the realism of the poet's actual experience negotiates with the elements of the field to drive the creation of the work and is essential to the formation of the structure of the work. In Kim Soo-yeong's poem, 'house' and 'road' are two sites that form the framework of his world of work. The site of him fulfilling self-reflection while feeling and longing for family love even in the dire circumstances immediately after the war was embodied in <My Family>, which took place in Sindang-dong. The house in Gusu-dong, where he spent the second half of his life, was a site of nature where he learned the sense of labor and looked directly at society and thought. In poems such as <In the Garden of Early Spring> and <The Thief>, the process of a poet's real experience of life is clearly revealed. As a poet in Seoul, the Jongno area where he was born and raised is like his hometown, and the people he met there became a great opportunity to form his consciousness. In <Modern Bridge>, the narrator presents a dramatic scene in which he renews himself while imagining a new time across generations. In <Giant Root>, the narrator expresses the joy of

* Anyang University

discovering the people and history with a harsh but sincere voice. The characters and objects appearing in the poem are familiar objects that can be seen on the street, and it can be said that he directly experienced it in the field of the road, and it can be said that it reawakened his subjective view of history and the positivity of life.

Key Words: Kim Soo-yeong, sitedness, house, road, self-reflection, life experience, populace, history

■ 논문접수 : 2022년 07월 31일

■ 심사완료 : 2022년 08월 22일

■ 게재확정 : 2022년 08월 22일